

해외이주와 교육 사업을 위한 경영혁신 방안

정지윤*·강경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외 이주와 교육 분야에 관련 전문가 부재 현상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998년 IMF로 많은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증가했지만 2010년 현재는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오히려 한국으로 역 이주와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들 측면에서도 한국 내에 대안학교들의 학력인정과 국제학교와 외국 유명대학 연계 한국 내에 정착은 2007년 이래 외국인 100만 시대에 접한 우리 대학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학생 유치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1. 서론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국제적 인구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으며, 해외이주자와 유학생 증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노동자의 해외파견, 밀입국, 불법체류, 남·북한 경제교류 등 다양한 업종에 전문가의 필요성이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과 관련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국제교류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다양한 기업의 고급 전문 인력을 배출함에 이르렀다. 우리사회에 많은 종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이주나 유학, 해외취업, 다문화, 국제결혼 등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학교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의료관광산업이나 국제학교, 외국기업 한국주재, 한국학교들과 외국학교들의 교류, 이주자와 유학생, 해외취업자 등 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흐름에 맞는 많은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들이 있어야한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많은 학연과 지연의 사고가 뿌리 깊다. 공부를 잘 해도 집이 가난해서 운이 없어서 좌절되는 학생들도 많다. 향후 우리사회는 학교나 지연이 아닌 전공이 우선이 되는 전문가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와서 많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 사회를 끌어가야 한다.

†본 논문은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논문임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2. 현황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1998년 IMF이후에 많은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생겨 관련 업체들의 경쟁도 심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전문가 부재 현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외교통상부 현재 정지, 폐업, 휴업 포함 이주업체영업등록현황은 187개 업체이고, 노동부 국외 유 무료 직업소개소만도 111개이며, 현지 고용주 찾는 취업알선 업체 90개, 공교육기관을 제외한 학원 등 사교육기관 85개, 개인이나 법인 유학업체도 800개 이상, 기존 법무법인 내에 관련 업종 추가 등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사건 사고가 많아 우리사회에 주목되는 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이주와 유학, 해외취업은 계속 있을 것이고 정말 한 가정을 잘 준비해서 캐나다,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로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하며, 외국학교와의 교류가 활발해진 대학 캠퍼스에 정확한 유학 가이드들이 나와서 학생들의 미래를 보여 줘야하며, 정부가 부르짖는 10만 양병설이 산업인력공단의 무상교육과 노동부 등록 해외취업 담당 업체들의 확실한 현지 고용주 찾아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준비가 되고 있지만 정작 5-10년 뒤 지금은 농촌지역에 80%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들어갈 중 고 대학의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로 한국에 국제학교들이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 외국대학을 지원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교포, 해외근무공무원,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근무자, 정부 초청. 추천에 의한 과학자, 교수 등의 자녀가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해 2-3년 이상 재학할 경우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입학 2009년 올해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교는 29:1이다.(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또한 오히려 한국으로 귀화하는 지식층의 외국인들도 많아졌다. 한국 상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출입국비자문제 등 관련 업종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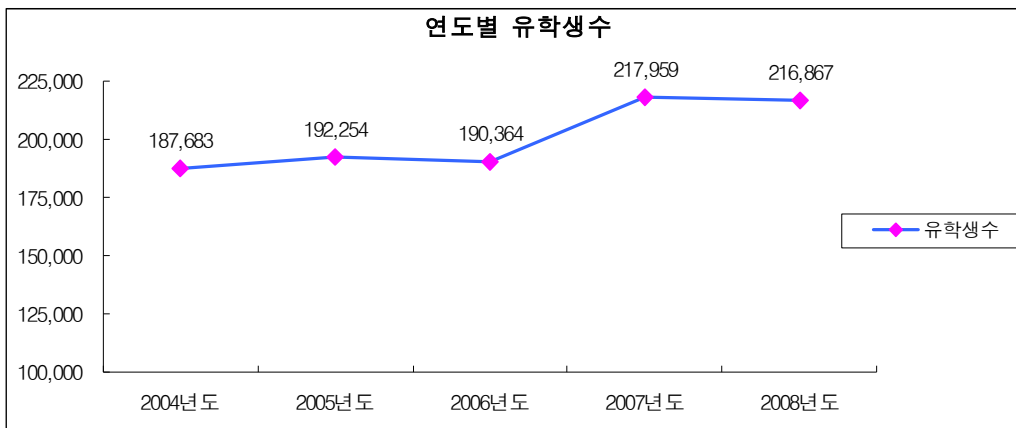
그래서 교육부터 준비가 되어 많은 이 분야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것이 현 사회 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 아래 통계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통계자료이지만 2007년도 말부터 해외이주신고 후 주민등록 말소 처리를 하고 발급받는 이주여권이 필수가 아니므로 2008년부터는 외교부에 신고 안하고 떠난 사람들도 좀 있다.



<표1> 연도별 국가별 해외이주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15,307	11,584	23,057	23,584	29,638	28,707	26,236	23,008	20,946
미 국	5,244	4,565	11,758	12,412	16,291	17,605	16,605	14,032	12,829
캐나다	9,295	5,696	6,937	5,658	5,858	3,898	2,792	2,778	2,075
호 주	392	476	673	948	1,333	1,761	1,940	1,835	1,846
뉴질랜드	348	817	1,541	1,182	1,160	1,422	1,574	942	386
기 타	28	30	2,238	3,384	4,996	4,233	3,325	3,421	3,810



<그림1> 국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대학 이상)

<표2> 초중고유학생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은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
(단위 : 명, %)

학 년 도(3.1~2월말)		초	중	고	합 계	순 수 해외유학생	
'02	전체 학생수	4,175,731	1,859,265	1,787,541	7,822,537		
	해외출국생	총 계	15,661(0.38%)	7,922(0.43%)	4,543(0.25%)	28,126(0.36%)	10,132(0.13%)
		유 학	3,464	3,301	3,367	10,132	
		파견동행	5,646	1,534	326	7,506	
		해외이주	6,551	3,087	850	10,488	
'03	전체 학생수	4,175,626	1,854,641	1,766,529	7,796,796		
	해외출국생	총 계	16,264(0.39%)	8,056(0.43%)	4,026(0.23%)	28,346(0.36%)	10,498(0.13%)
		유 학	4,052	3,674	2,772	10,498	
		파견동행	6,514	1,891	418	8,823	
		해외이주	5,698	2,491	836	9,025	
'04	전체 학생수	4,116,301	1,937,818	1,764,520	7,818,639		
	해외출국생	총 계	17,304(0.42%)	9,920(0.51%)	5,741(0.32%)	32,965(0.42%)	16,446(0.21%)
		유 학	6,276	5,568	4,602	16,446	
		파견동행	6,119	2,010	384	8,513	
		해외이주	4,909	2,342	755	8,006	
'05	전체 학생수	4,012,066	2,008,230	1,752,107	7,772,403		
	해외출국생	총 계	17,921(0.45%)	10,583(0.53%)	6,640(0.38%)	35,144(0.45%)	20,400(0.26%)
		유 학	8,148	6,670	5,582	20,400	
		파견동행	5,617	2,029	267	7,913	
		해외이주	4,156	1,884	791	6,831	
'06	전체 학생수	3,830,044	2,063,201	1,841,383	7,734,628		
	해외출국생	총 계	24,735(0.64%)	13,099(0.63%)	7,597(0.41%)	45,431(0.58%)	29,511(0.38%)
		유 학	13,814	9,246	6,451	29,511	
		파견동행	6,216	2,128	439	8,783	
		해외이주	4,705	1,725	707	7,137	
'07	전체 학생수	3,672,207	2,038,611	1,906,978	7,617,796		
	해외출국생	총 계	23,547(0.64%)	12,669(0.62%)	7,199(0.38%)	43,415(0.57%)	27,668(0.36%)
		유 학	12,341	9,201	6,126	27,668	
		파견동행	7,316	2,179	360	9,855	
		해외이주	3,890	1,289	713	5,892	

<표3> 초·중·고유학생 연도별·국가별 귀국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미국	중국	캐나다	동남아	뉴질랜드	호주	일본	기타	합계
2002	3,552	618	648	568	815	352	385	1,417	8,355
2003	4,532	1,025	1,252	873	1,639	500	496	1,881	12,198
2004	5,355	1,223	1,899	1,255	1,896	655	549	2,131	14,963
2005	4,743	1,416	1,825	1,345	1,310	595	419	1,933	13,586
2006	6,115	2,281	2,628	2,422	1,260	841	517	2,298	18,362
2007	6,157	2,601	3,332	3,354	1,309	902	527	2,095	20,277

3. 조사의 한계 및 문제점

초·중·등 유학생은 대부분이 유학사실 및 출입국 신고 자체를 은폐·기피하고 있어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자료를 제출한 재외공관도 적어 통계로서의 유의성이 크게 떨어진다. 조사방법에 재외공관에서 관할지역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조사하는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 있어 정확한 집계에 애로가 있다. 대학과 대학원의 구분이 없어 과정별 분류가 어려우며, 학위나 과정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single course나 직업교육기관(VTE : 한국의 전문대학과 유사)이 실시하는 단기 어학연수생이 많다.(호주, 캐나다, 독일 등)

4. 해결 방안

이주자의 역 이주나 유학생의 귀국에는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과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우선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의해 준비된 서류를 비교 분석해서 실제 서류 심사자인 각국 대사관 이민관의 심사 입장에 관한 설문 조사와 대행 관련 업체의 자격판정 입장에 관한 설문 조사와 의뢰를 한 고객의 선택 입장에 관한 설문 조사를 분석해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옛날에는 먹고살기 힘들고 살 터전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했지만 현 시대는 보다 나은 사회로의 교육이나 직업을 찾아서 스스로 원해서 이주를 한다. 하지만 원해서 하는 이주도 정보나 경험이 없다보니 대행업체를 찾게 되고 경쟁이 생긴다. 나라의 국력이 커지다 보니 재외동포들이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많은 국제

결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다문화룰 이루게 되고 1998년 이후로 해외이주와 유학이 증가추세였다면 현 시대는 외국 유명학교들이나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고 많은 한국대학들이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해서 학생들을 교환 공부하게 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외국 자사나 지사 근무로 훈련을 시키는 사회가 된 것이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법무부나 취업, 교육, 이주, 다문화 관련 사단법인들뿐만 아니라 복지와 자원봉사와 관련된 복지센터들의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각 기관의 근무자를 상대로 필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와 대행업을 찾는 고객을 상대로 필요 교육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 시대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에서 우선적인 경영혁신은 그 분야 전문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6. 참 고 문 헌

- [1] 김대식(2000), 『캐나다 이민법』, 다다미디어
- [2] 문영석(2005),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3] 법무부(2004),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 [4] 외교통상부(연도별), 『해외이주통계』
- [5] 한국유학협회(연도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
- [6] 주 OECD 대표부(2007), 『OECD 국가의 외국인력정책 동향과 시사점』
- [7]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8] 정민(2007), 『다산선생 지식 경영법』, 김영사
- [9] 박성수.황호영.김공수.이경근,(2009), 『제2판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박영사